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천강란·박옥임*·문희**

대한노인복지센터·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광양보건대학 간호과**

The Effect of Care Giver'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n Job Stress

Chon, Kang Nan · Park, Ok Im · Moon, Hee

Korea Senior Welfare Center, Gwangyang, Korea

Devison. of Social Welfar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

Dept. of Nursing, Gwangyang Health College, Gwangyang,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evel of care-givers' knowledge, their attitude towards the elderly and their stress levels within the job, and to apprehend the cause which has had an influence on job stress. The research subjects were 230 care-givers who work in a sanitarium for the elderly in the East of Jeollanamdo.

The tool used to measure their knowledge of the elderly was FAQ1 and the semantic differential scale was used to determine the attitude. Job stress was measured by the tool which was used by sun-ju Park. The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by SPSS Win 13.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care-givers' knowledge level point towards the elderly was relatively low at 44.6%. The average point of attitude toward the elderly was 3.91, which is relatively moderate. The percentages of job stress was generally low.

The results showed us that there was no correlation with the knowledge level of the elderly, the attitude towards the elderly and job stress. Since the results indicated that care-givers' knowledge level for the elderly was low, w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further education where care-givers can get general knowledge for the elderly and aging is necessary. Moreover, research for strengthening positive attitudes towards the elderly is also necessary.

Key words: care giver, elderly, job stres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9년 7월 현재 전체인구의 10.7%를 차지하여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UN은 한 나라의 총인구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명연장으로 인해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3%가 되어 고령 사회로, 2026년에는 20.8%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통계청 2009).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치매, 중풍, 노인성 만성질환 등의 질병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으며(이은희 2004), 특히 75세 이상 후기노인에서는 일상생활 능력의 모든 항목에서 부분도움과 완전도움의 응답이 현격하게 증가되어 노인 100명당 5~7명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박향숙 2006).

이에 정부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대비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복지법 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설하였고, 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으로 요양보호사를 배출시키고 있다. 요양보호사란 종전의 노인복지법상 인적자원인 가정봉사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지식수준을 강화하여 만들어진 국가자격제도이며 학력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이 원하는 사람이면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여 광역시, 도에 설치 신고를 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보건의료환경에서 노인대상자의 증가와 보건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인들과 직접 대면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롭고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를 안고 만들어진 요양보호사제도가 근무 지에서의 말은 업무외의 과도한 업무요구와 이용

자들의 무시하는 태도, 심리적 육체적 노동의 보수가 정부의 홍보와 다르다는 점 등의 모순점이 드러남으로 요양보호사들의 만족도가 낮으며(김진애 2009), 특히 요양보호사들은 개인의 역할 및 일상 업무 요인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민선 2009).

직무스트레스는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된 사회적 산물이라고 볼 때,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또한 요양보호사 제도가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 업무과다, 불명확한 업무분담, 보장되지 않은 자율성 등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다. 노인의 돌봄은 대상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과 훈련을 필요로 하며 노인 에 대한 태도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서비스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태도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책임의식이 약화되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핵가족화로 인한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의 분리는 사회로 하여금 노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게 한다(정인주 2003).

노인복지전문인력들의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노인에게 영향을 미쳐 노인이 자신을 비하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함은 물론 노인복지 전문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윤미 2003). 또한 노인대상자를 돌보는데 있어 노인에 대한 지식부족과 부정적인 태도는 노인 돌봄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장은숙 2008)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되는 상황에서 먼저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직무스트레스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고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요양보호사들의 노인 돌봄에 대한 질적 수준 제고 향상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한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요양보호사의 노인관련 특성,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노인관련 특성,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전남 동부 지역의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 선정은 연구자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설문요청에 응한 시설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시설관계자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요양보호사가 자기기입식 질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28개 기관에 총 270부를 배포하여 241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부실기재문항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부를 제외한 총 230부를 이 연구에 사용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9년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2. 조사도구

1)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7문항과 노인관련 특성으로 노인과의 동거 경험 여부 1문항, 동거경험의 질 12문항, 현재 노인대상자와의 관계 10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동거경험의 질은 정인주(2003)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노인과의 친밀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거경험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현재 노인대상자와의 관계 측정도구는 손동립(2000)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대상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노화과정과 노인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노인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는 노화 및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편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Palmore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고, 1998년에 수정 보완된 True-False version의 Fact on Aging(pat-1:FAQ 1)을 한국 노인 실정에 맞추어 수정 보완된 2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영역(11문항), 심리적 영역(6문항), 사회적 영역(8문항) 등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정답은 짝수 문항은 모두 정답이고, 홀수 문항은 모두 오답으로 각 문

항별로 정답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지식 총점은 최저 0점에서 최고 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26$ 이었다

3)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신념, 가치관, 감정 등을 의미하며 태도측정은 Sanders, Montgomery, Pittman & Balkwell(1984)이 개발한 의미분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0개의 상반되는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Likert 7점 척도(1: 매우 긍정적 ~ 7: 매우 부정적)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자료 입력 단계에서 긍정적인 형용사일수록 점수가 높고 부정적인 형용사일수록 점수가 낮도록 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각 문항이 7점 척도이므로 3.5점에서 4.5점 사이가 중립적인 태도의 범위로 분류한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4$ 이었다

4)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의 개념은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로 나누어 측정한다. 역할갈등은 개인의 욕구와 역할의 욕구가 불일치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역할모호성은 조직구성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결핍, 조직목표의 불명료성, 역할수행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무지 등의 상황에서 갖게 되는 심리적 부담감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역할과다는 주어진 시간동안 수행해 낼 수 있는 업무량 이상으로 요구되는 경우나 자신의 능력, 재능, 지식의 한계를 벗어난 역할이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박선주(2004)가 사용한 도구를 참조하였다. 이 도구는 의료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총 34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자들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2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의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록에 제시된 문항 중 1, 5, 6, 9, 10, 15, 16, 18, 19, 21을 제외한 문항은 역코딩하여 계산하였고,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1$ 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3.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조사 대상자의 동거경험, 노인과의 관계,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 직무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3)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Duncan 사후검정을 이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 4) 동거경험의 질, 노인대상자와의 관계,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직무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 5) 동거경험의 질, 노인대상자와의 관계,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가 직무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40~49세가 45.2%, 50~59세가 37.4%, 30~39세가 13.5%, 60세 이상이 3.9% 순으로 대상자의 82.6%는 4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를 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30)

Variables		N	%
Age	30~39 years	31	13.5
	40~49 years	104	45.2
	50~59 years	86	37.4
	over than 60	9	3.9
Marital status	single	10	4.3
	married	220	95.7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7	11.7
	middle school	41	17.8
	high school	124	53.9
	over college	38	16.6
Working hours	1~6 hours	91	39.6
	7~13 hours	139	60.4
Salary (10,000won)	under 50	47	20.4
	50 - 100	75	32.6
	over 100	108	47.0

상으로 한 이부심(2009)의 연구결과 40세 이상이 76%를 차지하였고 김진애(2009)의 연구에서도 40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75%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연령은 40세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자가 95.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요양보호사들의 연령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력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53.9%였으며, 중학교 졸업이 17.8%, 전문대학 졸업이 16.6%, 초등학교 졸업이 11.7%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하루 평균근무시간은 약 7시간 정도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1~6시간은 39.6%, 7~13시간은 60.4%로 나타났다. 월 평균 급여액은 100만원 초과가 47%를 차지하였으며 50~100만원 32.6%, 50만원 미만은 20.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노인관련 특성

노인관련 특성은 노인과의 동거경험, 동거경험의 질, 현재 돌보고 있는 노인대상자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부모, 조부모, 친척중 만 60세 이상인 노인과 현재 동거하고 있는 대상자는 20.0%, 과거에 동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64.8%로 84.8%의 대상자들이 동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2에 의하면 동거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동거경험의 질을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4.02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현재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노인대상자와의 관계 역시 5점 만점에 3.99점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복지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윤미(2003)의 연구에서는 동거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85.7%로 노인대상자와의 관계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강숙희(2007)의 연구에서는 60.8%, 장은숙(2008)의 연구결과에서는 97.4%로 조사되어 대부분이 동거경험이 있어 이 연구와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대가족적인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elderly

Variables	N	%	M	SD
Experience of living with the elderly	now	46	20.0	
	past	149	64.8	
	none	35	15.2	
Quality of cohabiting with the elderly			4.02	.95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the elderly			3.99	.54

3.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

이 조사 대상자의 전체적인 노인에 대한 지식 수준은 총 25점 만점에 평균 10.59점으로 정답률은 44.6%이었다. Table 3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지식의 영역별 수준을 살펴보면 신체적 영역이 11점 만점에서 5.40점(정답률 49.1%)로 가장 높았고 심리적 영역이 6점 만점에 2.70점(정답률 44.9%), 사회적 영역이 8점 만점에 2.48점(정답률 31.1%)순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간호사 등 노인복지전문가를 대상으로 노인의 지식수준을 조사한 이윤미(2003)의 연구에서는 24점 만점에서 14.88점, 정답률 62.0%였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장은숙(2008)의 연구에서는

Table 3. The knowledge about the elderly

knowledge	Mean	SD
Physical	5.40	1.80
Psychological	2.70	.93
Sociological	2.49	1.25
Total	10.59	2.86

25점 만점에 12.56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강숙희(2007)의 연구에서도 25점 만점에 12.06점, 정답률 48.2%로 이 연구대상자인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복지 전문가들에 비해서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병원이 계속 증가하고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 예상되며, 이제 시작단계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지식 영역별 수준을 살펴본 결과 신체적 영역에서 높은 정답률을 보이는 반면 사회적 영역에서는 낮은 정답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혜원(2002), 노인복지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윤미(2003),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강숙희(2007), 장은숙(2008), 한희정(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신체적 영역에서는 높은 정답률을 보이는 반면, 심리적·사회적 영역에서는 낮은 정답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들의 신체적 측면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심리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노인의 질 환경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노인이나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지식 문항 중 높은 정답률을 보인 지식 문항은 ‘시력, 청력, 미각, 촉각, 후각 기능은 모두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체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로 각각 93.9%, 93.5%로 나타났다. 반면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현재 인구의 10% 이상이 65세 또는 그 이상이다’ ‘우울은 젊

은이보다 노인들에서 더 많이 발생 한다’로 각각 9.1%, 15.2%로 나타났다.

4. 노인에 대한 태도

조사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7점 만점에 3.91점으로 중립적인 범위로 나타났으며 문항별

Table 4.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ttitude toward the elderly		Mean	SD
kind	- unkind	4.99	1.52
wise	- stupid	4.84	1.36
favorable	- unfavorable	4.72	1.64
good	- bad	4.70	1.61
reliable	- unreliable	4.51	1.57
ignorant	- knowledgeable	4.32	1.44
neat	- untidy	4.00	1.86
impatient	- patient	3.98	1.89
bored	- interesting	3.94	1.75
adaptable	- inadapttable	3.84	1.77
happy	- sad	3.81	1.73
selfish	- tolerable	3.71	1.85
optimistic	- pessimistic	3.70	1.85
satisfied	- complaint	3.58	1.77
attractive	- unattractive	3.49	1.59
inactive	- active	3.38	1.87
productive	- unproductive	3.31	1.85
progressive	- conservative	3.27	2.23
dependent	- independent	3.04	1.84
sick	- healthy	3.00	1.98
Total		3.91	0.96

태도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조사 대상자들이 중립적인 범위(3.5~4.5점)를 벗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 문항은 ‘친절한’ (4.99), ‘현명한’ (4.84), ‘호의적인’ (4.72), ‘좋은’ (4.70) 순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은 ‘아픈’ (3.00), ‘의존적인’ (3.04), ‘보수적인’ (3.27), ‘비생산적인’ (3.31) 순으로 나타났다. 한희정(2009)은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중립적이라고 하였으며 이윤미(2003)의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전문가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중립적인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는 않

왔지만 약간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장은숙(2008)의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어 약간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도 중립적인 범위는 벗어나지 않았지만 약간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가 약간 부정적인 것은 노인의 돌봄이 다른 영역에 비해 전문적인 기술보다는 손이 많이 가는 돌봄이 요구되어 노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급격한 노인인구의 성장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편견이 심화된다는 사실(김윤정 등 2004)을 고려할 때 노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긍정적 태도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문항별 태도를 살펴보면,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인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에 대해 친절하고, 현명하고, 호의적이고, 좋다고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프고, 의존적이며, 보수적이고, 비생산적인 존재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장은숙(2008)은 노인들은 관대하고, 박식하고, 인내심이 있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보수적이고, 비생산적이고, 아프고, 불평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이윤미(2003)는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노인에 대해 현명하고, 좋고, 호의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면서도 보수적이고, 불평이 많고, 의존적이고, 아픈 존재로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도 다른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질병을 가진 노인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에게 건강한 노인들과의 접촉 기회 제공,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노인,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5. 직무스트레스 수준

조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Table 5와 같다. 조사 대상자의 전체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5점 만점에서 3.44점으로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위 영역별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면, 역할갈등 3.38점, 역할과다 3.44점, 역할모호성이 3.57점으로 역할갈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조사한 박민선(2009)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대체로 높게 나온 결과와 약간 차이가 있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해정(2002)의 연구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유숙자(1999)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약간 높게 조사된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역할갈등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제 시작단계인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할갈등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자신의 역할에 대해 불안과 불만을 갖게 하고 사실을 왜곡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처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역할과다의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요양보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간과 능력에 비해 업무량이 많거나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 The degree of job stress

	Mean	SD
Role conflict	3.38	.49
Role ambiguity	3.57	.43
Role excess	3.44	.89
Total	3.44	.44

6.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에 대한 지식과의 관계

Table 6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에 대한 지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연령($t=2.164, p=.032$), 결혼상태($t=2.655, p=.025$), 최종학력($F=8.062, p=.000$), 급여액($F=2.682, p=.050$)에

Table 6. The differences of the knowledge about the elderly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Variables		Total		Physical knowl.		Psychological knowl.		Sociological knowl.				
		Mean	t/F	Mean	t/F	Mean	t/F	Mean	t/F			
Age	less than 40	10.93	2.164*	5.67	2.652**	2.77	1.433	2.49	.029			
	over than 40	10.10		5.03		2.59		2.49				
Marital status	single	13.10	2.655*	6.90	2.615*	3.30	1.855	2.90	1.113			
	married	10.47		5.34		2.67		2.47				
Education	middle school ^a	9.82	8.062***	4.90	7.388**	2.47	5.405***	2.46	.916			
	high school ^b	10.55		a, b < c		5.42		a, b < c		2.70	a, b < c	2.43
	over college ^c	12.08		6.26		3.08		2.74				
Business hours	1 - 6 hours	10.41	-.763	5.24	-1.070	2.69	-.043	2.47	-.143			
	7 - 13 hours	10.71		5.51		2.70		2.50				
Salary (10,000won)	under 50 ^a	9.93	2.682*	4.98	3.310*	2.64	.112	2.31	.907			
	50-100 ^b	11.13		a < b		5.80		a < b		2.71	2.63	
	over 100	10.49		5.31		2.71		2.46				
Live with elderly	yes	10.61	.346	5.47	1.560	2.65	1.712	2.49	.202			
	no	10.44		5.06		2.94		2.44				

*p<.05 **p<.01 ***p<.001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서는 40세 미만 집단이 40세 이상 집단보다, 미혼 집단이 기혼 집단보다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과 급여액의 사후검정 결과 학력에서는 전문대졸 이상 집단이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 집단보다, 급여액의 경우에는 50~100만원인 집단이 5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지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가정봉사원을 대상으로 한 하숙현(2007)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강숙희(2007)의 연구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정언주(2003)의 연구에서는 연령, 교육수준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의 영역별 지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신체적 영역에서는 연령($t=2.652, p=.009$), 결혼상태($t=2.615, p=.026$), 최종학력($F=7.388, p=.001$),

급여액($F=3.310, p=.038$)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노인지식의 결과가 거의 일치하였다. 그러나 심리적 영역에서는 학력($F=5.405, p=.005$)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었고 사회적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인이나 노화에 관한 심리적 사회적 영역의 지식은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7.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Table 7에 의하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에 대한 태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희정(2009)의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의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종교 모두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언주(2003)의 연구 또한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에 따라서 노인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Table 7. The differences of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Variables		Mean	t/F
Age	less than 40	3.95	.875
	over than 40	3.84	
Marital status	single	3.98	.253
	married	3.90	
Education	middle school	3.95	.184
	high school	3.90	
	over college	3.83	
Business hours	1 - 6 hours	3.90	-1.03
	7 - 13 hours	3.91	
Salary (10,000won)	under 50	3.77	1.003
	50-100	4.02	
	over 100	3.88	
Live with elderly	yes	3.92	.697
	no	3.80	

조사되었다. 그러나 하숙현(2007)은 50대가 60대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라고 하였고 강숙희(2007)는 연령과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은숙(2008)은 연령과 결혼 상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서로 다른 연구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없는 이유는 첫째, 연구 대상자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둘째, 태도라는 측정 자체가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 및 연구대상, 그리고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8.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Table 8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차이를 검증한 결과 근무시간에 따라서 역할갈등에 차이가 있었고 ($t=-1.729, p=.050$), 급여액에서는 직무스트레스 ($F=3.352, p=.037$)와 역할갈등($F=4.402, p=.013$)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근무시간이 더 많은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역할갈등 수준이 높

Table 8. The differences of job stres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Variables	Job stress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Role excess		
	Mean	t/F	Mean	t/F	Mean	t/F	Mean	t/FY(p)	
Age	less than 40	3.42	-1.916	3.35	-1.166	3.55	-.756	3.44	.005
	over than 40	3.47		3.42		3.60		3.44	
Marital status	single	3.30	-1.321	3.20	-1.413	3.56	-.199	3.22	-1.000
	married	3.45		3.40		3.57		3.45	
Education	middle school	3.48	.352	3.45	1.208	3.55	.869	3.46	.141
	high school	3.44		3.38		3.56		3.45	
	over college	3.41		3.30		3.65		3.37	
Business hours	1 - 6 hours	3.41	-.968	3.31	-1.729*	3.57	.107	3.45	.142
	7 - 13 hours	3.47		3.43		3.57		3.43	
Salary (10,000won)	under 50	3.30	3.352*	3.20	4.402*	3.47	1.451	3.34	.664
	50-100 b	3.49		3.42		3.60		3.52	
	over 100	3.48		3.44		3.59		3.42	
Live with elderly	yes	3.45	.154	3.40	1.303	3.57	-.312	3.40	-1.556
	no	3.43		3.29		3.59		3.63	

*p<.05

았으며 급여액에 있어서는 50만원 미만 받는 군보다 50~100만원 받는 군과 100만원을 초과하여 받는 군이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았으며 50만원 미만 받는 군보다 100만원을 초과하여 받는 군과 50~100만원 받는 군이 역할갈등 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으며,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결과 생겨난 사회적 산물로 보았을 때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박민선(2009)의 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담당환자수 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수발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개인과 조직의 관계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9. 노인관련특성,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노인관련특성(동거경험의 질, 노인대상자와의 관계),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 직무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Table 9와 같다.

노인과의 동거경험은 노인대상자와의 관계($r=.276, p=.000$), 노인에 대한 태도($r=.127, p=.049$)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인과의 동거경험의 질이 긍정적일수록 현재 돌보고 있는 노인대상자와의 관계도 긍정적이며 노인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해원(2001), 한정란(2000), 원영희(2004), 이윤미(2003)등에서도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하였지만 이인수(2000), 이은미(1990), 송미순(1984) 등의 연구에서는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동거경험 여부와 관련된성을 조사한데 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동거경험의 질과의 관련성을 보았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노인대상자와의 관계는 노인에 대한 태도($r=.115, p=.050$), 직무스트레스($r=.456, p=.000$), 역할갈등($r=.402, p=.000$), 역할모호성($r=.333, p=.000$), 역할과다($r=.276, p=.000$)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현재의 노인대상자와 긍정적인

Table 9. Correlation coefficients of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elderly and knowledge about the elderly, attitude toward the elderly, job stress

	1	2	3	4	5	6	7	8	9	10	11
The quality of cohabiting with the elderly	-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with elderly client ²	.276*	-									
Knowledge about the elderly ³	-.038	-.004	-								
Physical knowl. ⁴	-.062	.029	.817***	-							
Psychological knowl. ⁵	.002	.022	.583***	.240***	-						
Sociological knowl. ⁶	.002	-.068	.674***	.249***	.244***	-					
Attitude toward the elderly ⁷	.127*	.115*	-.037	-.053	-.056	.034	-				
Job stress ⁸	.033	.456***	.070	.082	.033	.017	.143*	-			
Role conflict ⁹	.039	.402***	.068	.061	.027	.047	.128*	.913***	-		
Role ambiguity ¹⁰	.034	.333***	.097	.089	.020	.079	-.025	.542***	.345***	-	
Role excess ¹¹	.001	.276***	.007	.054	.030	-.083	.183***	.766***	.540***	.172***	-

* $p<.05$ ** $p<.01$ *** $p<.001$

관계일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이며 직무스트레스는 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김혜경(1997)은 청소년들이 조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하였으며 이윤미(2003) 또한 대상자와의 긍정적인 경험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은 노인에 대한 태도나 직무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없다는 연구결과가 모두 보고되고 있다. 임영신(2002), 송은주(2004), 박선영(2006), 박종영(2006), 박향숙(2006), 조은영(2006), 염미자(2007), 강숙희(2007), 정수미(2009)의 연구에서는 지식과 태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희자(2002), 양선주(2003), 정언주(2003), 박혜옥(2007), 임정빈(2007), 장은숙(2008), 한희정(2009)의 연구에서도 이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태도라는 측정자체가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를 반영하는데 감정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렵고 노인의 수발업무가 다른 영역에 비해 전문적인 기술보다는 손이 많이 가는 개인적인 신체간호가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식과 태도사이

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동거경험($r=.127, p=.050$), 노인대상자와의 관계($r=.115, p=.049$), 직무스트레스($r=.143, p=.030$), 역할갈등($r=.128, p=.052$), 역할과다($r=.183, p=.005$)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노인과의 긍정적인 동거경험, 노인대상자와의 긍정적인 관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긍정적인 태도는 직무스트레스 수준, 역할갈등과 역할과다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연구결과 요양보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부모 또는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의 결과, 현재 자신이 돌보고 있는 대상자들과의 관계의 질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직무스트레스는 노인대상자와의 관계($r=.456, p=.000$), 노인에 대한 태도($r=.143, p=.030$)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노인대상자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직무스트레스는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10. 노인관련특성,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노인관련특성(동거경험의 질, 노인대상자와의 관계),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of the factors effecting on job stress

	Job stress							
	All subjects(N=230)				Participants living with elderly(N=195)			
	B	SE	β	t	B	SE	β	t
Constant	1.704	.235		7.255***	1.966	.276		7.117***
The quality of experience with the elderly	-	-	-	-	-.048	.030	-.137	-.975
The relationship of elderly client	.366	.049	.446	7.457***	.396	.055	.482	5.800***
Knowledge about the elderly	.012	.009	.082	1.005	.013	.009	.088	1.152
Attitude toward the elderly	.039	.027	.108	1.457	.039	.055	.104	1.452
	adjusted R ² = .25				adjusted R ² = .26			
	F = 12.677***				F = 14.314***			

***p<.001

동거경험의 질, 노인대상자와의 관계,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모델은 F값 14.314로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모델설명력(Adj R^2)은 25.6%였다. 네가지 변수 중 노인대상자와의 관계만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수준 .001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대상자와의 관계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수준 .001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노인대상자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수준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고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요양보호사들의 노인수발업무에 대한 질적 향상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은 총 25점 만점에서 10.59점으로 약간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의 영역별 수준을 살펴보면 신체적 영역에서 정답률이 가장 높았고 심리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에서는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7점 만점에 3.91점으로 중립적인 범위로 나타났다. 중립적인 범위를 벗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 문항은 ‘친절한’, ‘현명한’, ‘호의적인’, ‘좋은’ 순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은 ‘아픈’, ‘의존적인’, ‘보수적인’, ‘비생산적인’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양보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5점 만점에서 3.44점으로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위 영역별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면, 역할갈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역할과다, 역할모호성 순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에 대한 지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연령, 결혼

상태, 최종학력, 급여액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더 낮은 집단과 미혼 집단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과 급여액의 사후검정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급여액이 많을수록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에 대한 태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차이를 검증한 결과 근무시간에 따라서 역할갈등에 차이가 있었고 급여액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역할갈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근무시간이 더 많은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역할갈등 수준이 높았으며 급여액이 많을수록 직무스트레스와 역할갈등이 더 높았다.

일곱째, 노인관련특성(동거경험의 질, 노인대상자와의 관계),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 직무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노인과의 동거경험은 노인대상자와의 관계, 노인에 대한 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대상자와의 관계는 노인에 대한 태도, 직무스트레스,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은 노인에 대한 태도나 직무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동거경험, 노인대상자와의 관계, 직무스트레스, 역할갈등, 역할과다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무스트레스는 노인대상자와의 관계, 노인에 대한 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덟째, 노인관련특성(동거경험의 질, 노인대상자와의 관계),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동거경험의 질, 노인대상자와의 관계,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모델은 F값 14.314로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모델설명력(Adj R^2)은 25.6%였다. 네가지 변수중 노인대상자와의 관계만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수준 .001에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결과 요양보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바, 노인 및 노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재교육이 필요하며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노인대상자와의 관계가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고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인대상자와의 만족스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특정지역의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요양보호사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요양보호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하면서 노인수발업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수요소이다. 특히 노화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종합적인 현상이므로 노인 및 노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정규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의 곁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치매노인이나 외상노인을 위한 대소변 수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감소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서비스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직무스트레스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결과 생겨난 사회적 산물이다.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은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중 역할요인만으로 제한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다 포괄적으로 구성하여

관계를 분석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숙희(2007) 일부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노인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윤정, 강인, 이창식 (2004). 청년, 중년, 노년세대로 별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65-75.

김진애(2009) 요양보호사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경(1997)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세대차이에 관한 연구: 미국 이민 가족내의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간의 비교연구. *간호학회지* 12(1), 1-11.

박민선(2009)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영(2006) 노인병원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노인간호 교육요구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주(2004)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전략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종영(2006)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와 노인간호 실천과의 관계. *한림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향숙(2006) 노인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통제기술.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혜옥(2007)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조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동립(2000) 재가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사의 업무환경에 따른 소진현상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미순(1984) 간호원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7(7), 117-125.

송은주(2004)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선주(2003) 종합병원 의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염미자(2007)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영희(2004)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4(1), 187-206.

이부심(2009)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의 직업의식 및 윤리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윤미(2003) 노인복지전문가의 노인에 대한 태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희(2004) 간병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미(1990) 중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텔레비전 드라마와 코미디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수(2000) 농촌지역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도 연구. 한국노년학 20(2), 123-135.
- 이혜원(2001) 한일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 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급여유무별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46, 377-403.
- 이혜원(2002) 임상간호사의 성격특성, 업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정(2002) 임상간호사의 성격특성, 업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영신(2002) 한 종합병원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2007)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및 태도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숙자(1999)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은숙(2008) 입원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과 태도 및 간호실천;보훈병원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수미(2009)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언주(2003)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영(2006) 의사와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해 갖는 태도와 지식.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희자(2002) 노인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태도, 실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9) 장래인구추계. 서울:통계청.
- 하숙현(2007) 가정봉사원의 노인건강관리 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조사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정란(2000)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노화에 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연세교육연구 13(1), 191-206.
- 한희정(2009) 종합전문요양기관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간호 교육요구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Palmore E(1998) The facts on aging quiz (2nd ed). New York: Spinger Publishing Company.
- Sanders GF, Montgomery JE, Pittman JF & Blakwell, C(1984) Youth's attitudes toward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1), 59-70.